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3. 11.(금)

## ■ (농정 이슈) 2022.3.10. “농민신문” 보도

### ○ 윤석열 당선인 농정공약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등 그가 내건 농정공약에 농민의 눈길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농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당선인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농가 경영부담 완화 공약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식량주권도 강화한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 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예방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을 통해 마련한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한다.

<양석훈 기자>

## ■ (언론 동향) 2022.3.10. “농기자재신문” 보도

### ○ 국내 무기질비료 업계, 라우 사태 원자재 수급 안정 최선 다해

- 주 수입비종인 염화칼륨 가격, 전년동기대비 약 146% 급등
- 지난해 연말대비, 요소 21%↑, 암모니아 56%↑, 인산이암모늄 48%↑, 염화칼륨 63%↑

지난해 초부터 국제 무역분쟁, 비료수요 증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기질비료 수급과 가격이 한층 불안해지고 특히,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염화칼륨은 지난해 3월 톤당 269달러에서 같은해 9월 548달러, 12월 622달러에 이어 올해 3월 663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3월 대비 146%로 가격 급등세를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3. 11.(금)

보이고 있다.

국내 비료업계로서는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올라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비료원자재인 요소는 전년 연말대비 21%, 암모니아 56%, 인산이암모늄 48%, 염화칼륨 63%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체 염화칼륨 소요량 77만톤의 30%인 23만톤을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64%인 49만톤, 이스라엘이 5%인 4만톤 등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염화칼륨 수급은 상반기 소요량인 약 15만톤을 기존 재고 및 계약 등을 합해 거의 전량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비료생산업체들이 수입선 다변화와 공동구매 등 원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분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농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차액의 80%를 정부 등에서 보조하기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무기질비료 구입에 큰 부담을 줄인바 있다.

또한,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주 수요처인 농협중앙회에서 오랜 기간 제조원가를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2,000여 억원이 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 올해부터 원자재 수급 안정화로 무기질비료 적기 생산과 공급 및 비료가격 현실화를 위한 ‘무기질비료 상시 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비료협회 운영철 전무는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로서는 그동안 납품가격에 제조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적자 누적 등으로 노후 시설 개선, 신기술 개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격조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착되어 농가와 비료업체가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작물생산에 필수자재인 무기질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수 기자 >